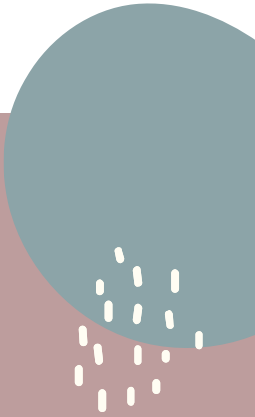


예술꽃 씨앗을 틔우다

예술꽃 씨앗학교, 그 첫 해 이야기

충북 영동군 부용초등학교



2008년도부터 다섯 해 동안을 이곳에서 보냈다. 순수한 아이들과 야트막한 동산에 폭 안긴 학교 전경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다. 다른 곳에서 만기를 채우자 마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된 것도 그때 아련했던 기억 때문이리라 생각한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아이들은 250여명에서 180여명으로 줄어들어 있었다. 교실 가득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 마음이 허전했다. 교직 생활도 이제 13년차에 접어든 지금, 아이들과 어떤 교육활동을 할까 고민하다가 예술꽃 씨앗학교를 신청하게 되었다.

예술꽃 씨앗학교는 전교생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전교생이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원하여 공교육 내 문화예술교육 효과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거점 기관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2008년 10개 학교를 시작으로 사업 12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까지 전국 133개의 학교가 예술꽃 씨앗학교로 선정·운영되었으며, 올해 우리 학교는 열 한번째 기수가 되었다.



어떤 문화예술교육을 담아 낼 것인가

초등학교에서는 학년에 따라 아이들의 발달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능력에 따른 단계별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며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수업이 온전히 담아 내질 수 있도록 학년별 성취기준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예술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넘나들기,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각기 다른 관심과 성향을 표현해낼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영역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정해지지 않은 답을 내면에서 꺼내 놓으며 자신들의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업, 마음껏 상상하고 그 상상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수업, 더디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수업, 목표가 아닌 과정 하나하나를 밟아가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문화예술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사고의 깊이와 경험의 폭을 넓히고 삶을 다채롭게 향유하게 하고자 한다.

2020 새로운 도전

2019년 일년을 꼬박 준비한 뒤 예술꽃 씨앗학교의 프로그램 협의가 한창일 무렵, 위기가 찾아왔다. COVID19이라는 전무후무한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어지럽혔고,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는 상상조차 해 본적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서서히 감이 잡혀갈 무렵, 문화예술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단순히 일방적인 강의로 전달하기에는 예술교육이 가져야할 특수성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할 것 같았다.

얼마간을 동학년 선생님들과 머리를 싸맨 끝에 '예술꽃 나비 아트박스(Art-box)'라는 프로젝트를 도전해보기로 했다. 랜선 너머로 무언가를 전달한다는 것. 특히나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에게 자율 활동을 설명해야한다는 것은 도전할 가치가 충분했다.

ON-LINE





예술꽃 나비 아트박스

예술꽃 나비 아트박스 프로젝트는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서 자신만의 아트박스를 만드는 활동이다.

활동 순서는 크게 3단계로 나뉜다. 제시된 계획서 예시를 참고하여 자신이 원하는 예술 영역을 선택한다. 계획서를 작성하여 각자의 담임 선생님에게 확인을 받고 통과가 된 경우에만 재료를 구입하러 갈 수 있다. 아이들이 도보로 갈 수 있는 큰 문구점에 개인별 구입 가능한 최대 금액을 미리 결제해 두었다.

재료의 구입이 끝난 친구들은 4주 동안 해당 시간표의 온라인 학습 시간에 자율적으로 예술가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1. 계획서 세우기
2. 아트박스 만들기
3. 예술가 활동하기



1단계. 계획서 세우기

계획서



- 첨부파일 (한글) 다운 받기
(다운 받을 수 없는 경우 배움기록장 제일 뒷장에 손글씨로 적기)
- 선생님 예시를 보고 계획서 세우기



2단계. 아트박스 만들기

쇼핑 Go



- 드림디포 방문
- 인사하기
(부용초 5학년 1반 이미림입니다)
- 예산 범위내에서 물건 구입하기
(2만 5천원 이내)
- 바우처를 받은 친구들은 자신들이 사고 싶은 물건 사기
- 구입한 영수증 사진찍어서 담임쌤에게 보내기(원본은 두고 오기)

3단계. 예술가 활동하기

활동하기



- 매일매일 예술가 활동하기
- 일주일 동안 한 활동 모습을 찍어서
금요일 창체시간 과제로 제출하기



2020. 6. 7 92차 아트박스 개원식 5학년(반)미술 활동기.

수제 목공	무엇이든 만다든 애호가 되기. 무엇이든 똑똑 만들기.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가 목이 땀기. • 깎는 법 태워넣기. • 목에 붙은 스티커 떼고 땀기. • 색칠하기.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카 (주황색, 금색, 아세톤) • 테이프 • 신문
느끼	집에서 하면 정말 흥미도 내버리고공기도, 전선내버리고이제는 집안전대정리 시 말아야 한다.



Closing

학교가 봉쇄되고 주요 교과 학습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예술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라는 조금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시작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매주 학급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아이들의 활동 사진은 40분의 수업이 담아내지 못하는 그 이상을 짐작하게 했다.

등교 수업 시작한 지 한 달을 훌쩍 넘긴 지금도 가끔 아이들은 그때 이야기를 전하곤 한다.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며 답을 알아가는 예술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시작할 때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느꼈었던 것 같다고. 이러한 아이들의 깨달음은 교사의 도전에 또 다른 용기를 보태고 있다.

